



Vol.594

도전으로 만드는 아름다운 내일

국제기능올림픽
금메달리스트
강태석

NOVEMBER 2024



월간 **내일**
11 November 2024
Vol.594

Contents

2024.11

Vol.
594

도전으로
만드는
아름다운
내일



Special

노동자와 사용자의 관계에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전환의 방향

고용노동부 소식지 <월간내일>

발행처	고용노동부
발행인	고용노동부 장관
편집위원	고용노동부 대변인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전화	044-202-7782
홈페이지	www.moel.go.kr
웹진	www.labor21.kr
기획·제작	경성문화사



04

토익 에세이

삶의 모든 도전이 소중하기에

08

쉬어가기

서툰 시작 앞에 망설이는 당신을 위해

10

어쩌다 우린

상생하는 노사문화 구축을 위한 무한 도전
디와이이노베이트(주)

14

내일 인터뷰

멈추지 않는 원동력, '도전'으로 이어가는 꿈
국제기능올림픽 금메달리스트 강태석

Move

우리 사회의 다양한 기회를
만들어가는 가치 있는 이야기

18

내일을 향한 도약

'학교와 일터'를 연결하고, '배움과 근로'를 동시에!
로얄금속공업(주) 조환희 사원

22

고용 아카이브

도전하는 청년의 미래를 위해
청년도전지원사업

26

희망 브릿지

직업상담사로 재취업 성공, '내 일'로 꽂피운 新중년 인생!
최성숙 씨

30

일터애(愛)서

쉽고 간편하게 이용하는
취업 똑·똑 온라인 서비스

32

내일, 매일

더 정교하게 진화하는 드론 산업 무한한 가능성을 품다
박석종 한국드론산업협회장

36

기자단이 간다

중대재해 사이렌
안전한 일터의 시작!



Wave



Wave

오늘의 변화 속에서 펼쳐지는
유용한 정보와 내러티브

38

내일, 플레이스

가장 멋진 동네 성수동을 가다

42

트렌드 프리뷰

낡은 옛것에서 트렌디한 전통으로

44

MOEL 뉴스

48

팩트풀니스

주행 보조를 넘어 운전자 없는 운행으로

50

잡, MBTI

항공기조종사·항공우주공학자

52

낼툰

도전을 방해하는 요인 & 지금 이 순간도 인생의 한 조각

54

WEVENT

초성퀴즈 & 독자 라운지



삶의 모든 도전이 소중하기에

우리 삶에는 여러 종류의 도전이 있다.
인생의 크나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도전,
일상에서 거듭되는 사소한 도전,
미지의 길을 향한 끝 모를 도전까지,
크고 작은 도전 모두가 소중하다.



도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인과 나를 비교하거나
스스로가 만든 한계에 자신을 가두지 않고
과거의 나를 성장시키는 데 집중하는 것이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맞서
도전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사람이다.

“세상의 중요한 업적 대부분은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꾸준히 도전한 사람들이 이뤄낸 것이다.”
- 데일 카네기

서툰 시작 앞에 망설이는 당신을 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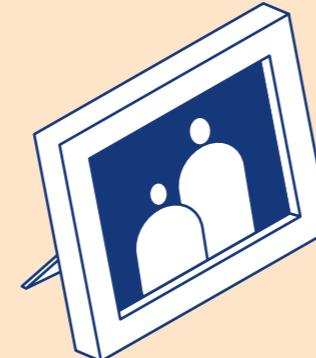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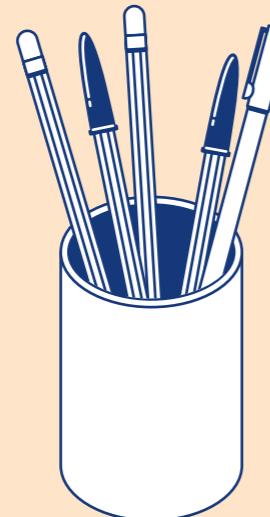
과거는 후회해봤자 지나간 장면일 뿐이고, 오늘은 언제나 다가올 나의 꿈의 발판이다.
먼훗날 지나간 오늘을 떠올렸을 때, '아 모든 건 그때의 오늘 덕분이었구나' 싶은 날이 분명 올 것이다.
그러니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믿는 수밖에.

글 김상현

어제까진 잘될 거라 굳게 믿어놓고, 오늘 아침이면 믿음은 산산조각 무너질 때가 있다. 강한 확신이라 생각한 것들마저도 약한 흔들림 앞에서 아스러져 버린다. 개인의 믿음은 여러 상황과 타인 앞에서 작아지기 마련이고, 아주 잘되고 있다는, 앞으로 잘될 것이라는 마음을 갖는 건 정말 쉽지 않다. 그래서 가끔은 이 삶의 굴레가 원망스러울 때도 있다.

계획한 것들이 틀어질 수도, 기대했던 것들이 실망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 사소한 것들이 나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가 느끼는 대부분의 두려움은 막상 부딪쳐 보면 별것 아닐 때가 많다. 지금 느끼는 것들은 막연한 불안일 테고, 주변에서 하는 말들은 직접 겪어보지 않은 자들의 어림짐작일 뿐이다.

과거의 나는 어떤 결과를 앞두고 믿지도 않았던 신을 찾아 제발 잘되게 해달라고 빌기도 했으며,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면 모든 걸 탓해보기도 했다. 교회도 법당도 제대로 나가본 적 없는 사람이 어떤 땐 간절하다가 어떤 땐 탓하는 것도 웃긴 일이지만, 아무튼 그땐 그랬다. 그것만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요즘의 나는 과거의 나에게 간절히 빈다. '부디 그 간의 노력이 밀도 있었기를', '전략이 촘촘하게 짜였기를', '좋은 결과를 오래 유지할 힘을 길러



김상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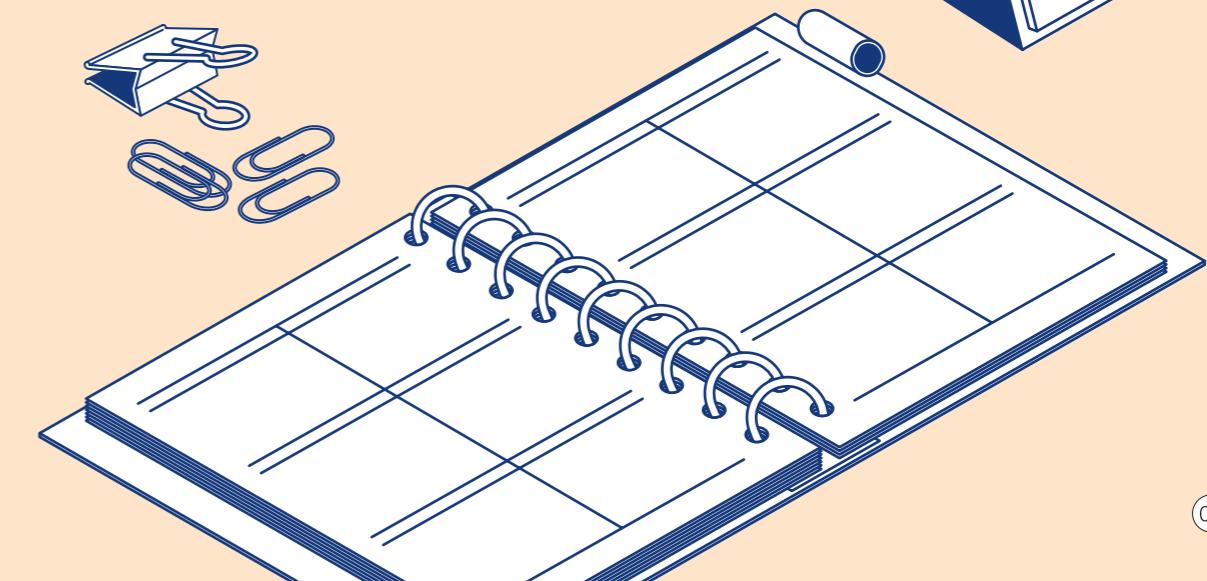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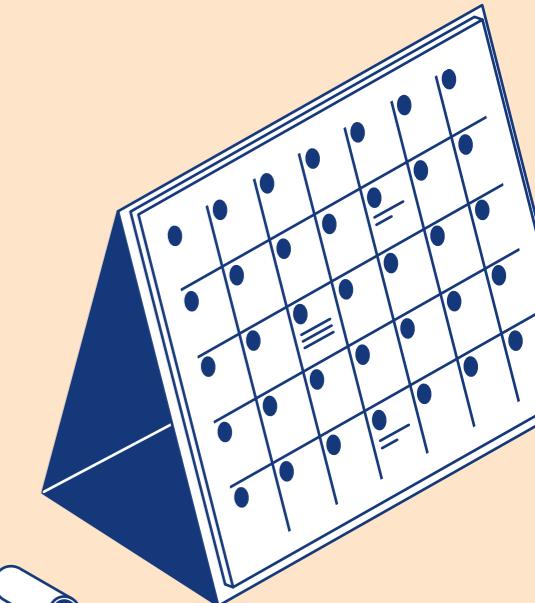
에세이 <당신은 결국 무엇이든 해내는 사람>, <내가 죽으면 장례식에 누가 와줄까> 등을 집필한 작가 겸 필름 출판사 대표

두었기를', '나만 행복한 게 아니라 모두를 행복하게 할 선택을 했기를' 그러니까 언젠가 과거가 될 오늘도 허투루 보내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 언젠가 빌게 될 오늘이 헛되지 않게끔 말이다. 풀어낼 게 너무 많으니까 엉켜지지 않도록 한땀 한땀 신중하게 공들이다 보면 더 나은 내일을 맞이할 거라는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며, 나는 오늘도 내 안을 꽉 채우는 일에 집중한다.

결국 내가 보내온, 쌓아온 모든 것들이 나를 만들고, 내가 풀어낸 것들의 색깔을 만들어 내는 것이었다. 내 색깔이, 배경이 없어 고민하던 시간들 조차 나의 색과 배경을 만들어 준 것이었고 그 모든 축적의 시간들이 결국 나였다는 걸 깨달으니, 일도 삶도 너무나도 재밌어진다는 인생의 치트키를 배우기도 했다.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어떤 느낌으로 삶과 일을 대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것 하나만은 분명하다. 내가 보내고 쌓은 모든 것들이 결국 다시 나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그리고 그것들이 다시 돌고 돌아 다시 나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거라고 말이다.

명곡은 악기 없이도 빛이 난다. 막연했던 구름이 걷히고 나면 눈부시게 빛날 당신이 있다. 겁내지 말자. 사실 별것 아닐 수도 있다. 발전을 꾀하거나 성장을 요하는 일에는 필연적으로 손가락질이 따라오기 마련이다. 모든 시작은 서툴기 때문. 우리는 그저 받아들이는 것에도 익숙해져야 한다. 부끄럽고 창피하고 인정하기 싫은 것들도 결국엔 나의 일부일 테니. 그걸 인정하는 순간 나도 모르는 발전과 성장의 한 발을 딛게 될 것이다.



상생하는 노사문화 구축을 위한 무한 도전

‘2024 노사문화 우수기업’ 디와이이노베이트(주)

현재에 안주하면 무엇도 달라지지 않지만, 한계를 뛰어넘은 도전은 변화와 혁신이라는 선물을 가져다준다. ‘근로자가 주인이 되는 회사’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수많은 도전을 거듭한 끝에 우수한 노사문화를 구축,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해 오고 있는 디와이이노베이트(주)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글 김지연 사진 김경수

Q 디와이이노베이트(주)는 어떤 기업인가요?

‘바른경영을 통해 탁월한 가치를 창출하여 공동체의 행복과 사회발전에 기여한다’는 미션을 바탕으로 크레인, 콘크리트펌프카, 자동세차기, 골프카트를 제조 및 판매하고 있는 산업기계 제조 기업입니다. 1978년 설립된 동양기전을 모기업으로 하며, 1992년 동양기전 산업기계 사업부 익산공장으로 설립되어 2020년 현재와 같은 디와이이노베이트(주)(이하 디와이이노베이트)라는 이름으로 기업 분할했습니다. 현재 전북특별자치도 내 신생기업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직원 수는 273명으로 무노조 사업장입니다.

Q ‘사원이 주인이 되는 회사’ 실현을 위한 노사문화 개선에 많은 도전을 해오셨다고 들었습니다.

2009년 미국발 금융위기부터 지속된 비상 경제체제로 인해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위기 극복을 위해 매월 경영협의회(노사협의회)를 하며 노사가 함께 고민하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덕분에 기업 분할 이후 매출이 상승해 구성원들에게 많은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었고, 지역·청년·여성·고졸 일자리 창출로 3개년 동안 90여 명을 충원했습니다. 청년층이 많이 유입되면서 세대 간 갈등 해소를 위해 노사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시행해 유연근무제 도입, 세대 간 간담회, 사내 행사 개최, 현장 시설 개선 등에 노력을 기울여 구성원의 근로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우수한 노사문화 형성을 위해 노력한 결과 고용노동부의 ‘2023년 노사 파트너십 우수기업’, ‘2024년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었습니다.

Q 이렇듯 노사 화합에 앞장서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창업주께서 40여 년 전 노동운동 확산 시기부



터 사원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고, 사원들 마음에 '회사의 주인은 나'라는 주인의식을 심어줬습니다. 이후, 사업 성장과 복리후생을 도모하는 근로자 대표 조직을 설립해 현재까지 매월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영협의회 이외에도 보다 심층적인 논의를 위해 인사 실무위원회를 운영 중이며, 여기에서는 실무자와 근로자 위원들이 논의를 통해 보다 내실 있는 경영협의회를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Q 노사가 참여하는 경영협의회는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나요?

경영자 위원 7명, 근로자 위원 7명, HR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결이 확정되면 사원들에게 식당 게시판 게시, 이메일 등으로 공유합니다. 경영 현황, 생산 운영계획, 산업 안전보건 관련 내용 등을 공유하고, 근로자 위원이나 익명의 구성원 건의함을 통해 접수된 요청 사항과 기타 안건들을 논의합니다. 추가로 임금 조정, 성과 배분, 복리후생, 제도개선, 행사 등의 의사결정도 합니다.

Q 적극적인 노사문화 구축 후 기업 내외적으로 변화한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가장 큰 변화는 구성원들의 경영 참여도입니다. 이전에도 경영협의회에 구성원 의견이 상정되는 프로세스는 있었지만 대부분 관심이 적고 의견을 나눠도 되는지 의구심을 가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적극적으로 노사문화를 구축한 후에는 구성원의 의견이 실제 현장에 반영되는 모습이 보이니 다들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주시고 경영 현황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청년층과 기성세대의 소통도 활발해진 점도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Q 그 밖에도 디와이이노베이트만의 독특한 기업 문화가 궁금합니다.

사내 문화 중 가장 오래된 것은 '독서경영'입니다. 책 읽는 회사를 지향하며 1995년부터 매년 4권씩 책을 읽고 2권에 대해 독서토론을 하는 문화입니다. 또한, 구성원 가족과 협력업체 가족 까지 참여할 수 있는 백일장 성격의 '디와이 문학제', 구성원 자녀와 함께 독서 여행을 떠나는 '독서캠프' 등이 있습니다. 승진과 성과관리에

그간 도전해 왔던 일들을 바탕으로 향후에도 고유한 기업 문화를 잘 정착시켜 공동체의 행복과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노사문화 우수기업>이란

노사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적인 노사 관계로 상생의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기업을 선정 및 지원해 상생협력의 노사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포상제도. 신청한 기업의 노사문화 추진 실적과 사례 발표 등 의 심사 및 검증을 거쳐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한다.

독후감 평가를 의무적으로 시행해 독서문화상 대통령 표창, 독서경영 우수 직장 인증제 우수상을 등을 수상했습니다. 그 밖에도 복리후생으로는 근속 수당과 근속 휴가, 휴가비, 자녀 학자금, 명절 복지포인트, 어학성적 성과자에게 지급하는 어학 지원제도, 자격증 포상 제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Q 향후에도 노사문화 발전을 위해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요?

시대별·세대별로 달라지는 구성원 의견을 반영

해 변화하는 세상에 잘 적응하며 경영협의회를 매월 적극적으로 운영해 나갈 방침입니다. 또한, 그룹사 내 타 법인에 우수한 노사문화 사례를 전파할 예정이며 전북특별자치도 선도기업 대표회사로서 지역사회에도 이러한 노사문화를 지속적으로 전파하고자 합니다. 산업기계 제조업인 만큼, 현장의 안전 환경 강화를 위해 시설 개선 활동도 지속할 예정입니다. 그간 도전해 왔던 일들을 바탕으로 향후에도 고유한 기업 문화를 잘 정착시켜 공동체의 행복과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멈추지 않는 원동력, ‘도전’으로 이어가는 꿈

국제기능올림픽은 각국의 청년 기능인들이 직업 기능을 겨루는 세계 최고 권위의 직업기술 대회다. 지난 9월 프랑스 리옹에서 열린 제47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대한민국은 49개 직종에 57명의 선수가 출전해 종합 2위를 달성하며 기술 강국의 입지를 굳혔다. 네 번의 도전 끝에 의상디자인 분야 국가대표로 선발되어 국제기능올림픽 금메달의 영예를 안은 강태석 선수에게 끝없는 도전의 의미란 무엇인지 들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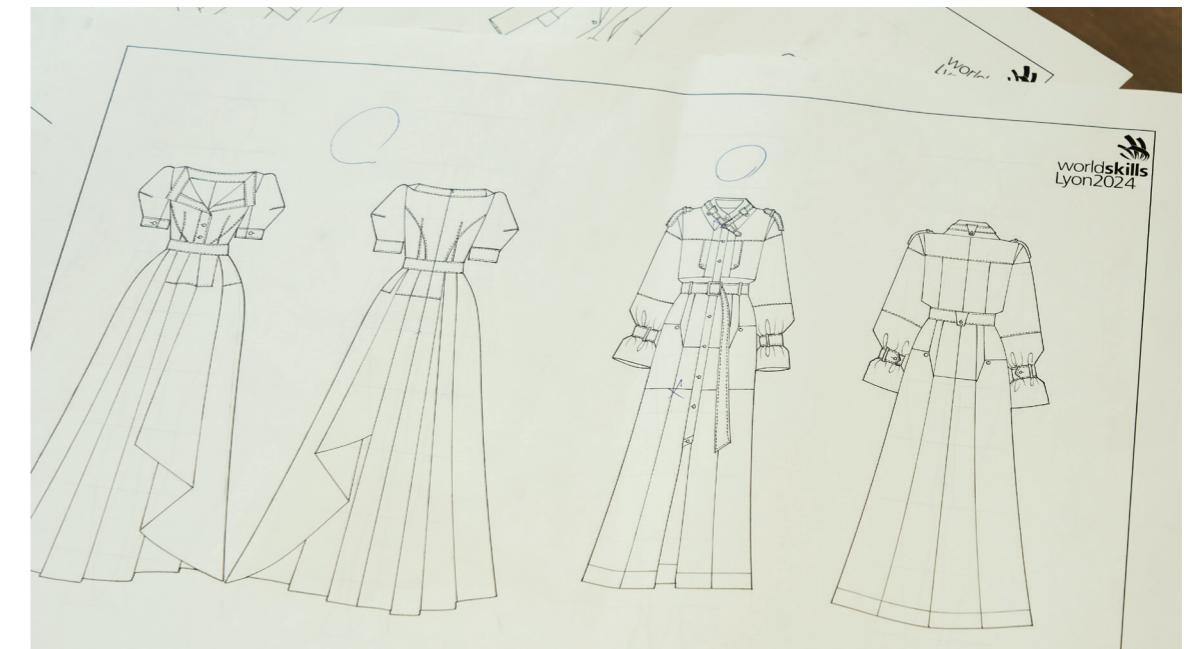
글 김지연 사진 고인순

Q 먼저 2024년 제47회 국제기능올림픽
금메달 획득을 축하드립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랫동안 기능올림픽 준비를 해왔는데 좋은 결과를 얻어 기쁩니다. 시상식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고 태극기를 들고 있을 때 꿈만 같았고, 사실 현재까지도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고등학생 때 부터 타지에 살며 대회 준비를 하느라 부모님을 일 년에 한두 번밖에 뵙지 못했는데 금메달 딴 후 부모님이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부모님도 무척 좋아하셔서 더욱 기뻤습니다.

Q 의상디자인을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어릴 때부터 옷 입는 것을 좋아해서 고등학교도 직업계고 패션스타일과에 진학했는데요. 실습 하다 보니 재미있고 선생님도 소질이 있다면서 기능대회 준비를 권유하셨습니다.



처음엔 고향인 인천에서 준비하다가, 광주광역시에 있는 패션디자인학원에서 교육받으며 기초부터 탄탄히 다져 실력이 많이 늘었습니다.

**Q 전국 기능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국가대표로 발탁된 후 기능올림픽에
출전하기까지의 과정이 궁금합니다.**

지방 기능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내면 전국 기능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데,

도전을 망설이거나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마시고,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다시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국대회에서 우승한 4명을 대상으로 국가대표 선발전을 진행합니다. 두 차례의 평가를 거쳐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사람 한 명 만이 기능올림픽 국가대표로 출전하게 됩니다. 1년간 선수촌에서 합숙하며 기능올림픽을 준비했는데 많은 선수들이 하루 약 15시간을 연습에 매진할 만큼 치열하게 훈련에 임했습니다.

제가 출전한 기능올림픽 의상디자인 분야의 경우 18시간 동안 스캐치, 옷 제작 등 4가지 과제가 주어지는 방식으로, 각국에서 총 26명의 선수가 출전했습니다.

Q 의상디자인 분야에 몸담아 오는 동안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경험이 있다면요?
교육받으며 기능대회를 준비할 때, 학원 선생님들께서 국민내일배움카드와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제가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들을 알려주셨습니다. 타지에서 혼자 살다 보니 월세 등 금전적인 부담이 많았는데 여러 지원을 받은 덕분에 마음 편히 연습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또, 기능올림픽은 만 22세까지만 참가 가능한데, 국가대표가 될 수 있는 마지막 해에 네 번째 도전 끝에 전국대회에서 금메달을 딴 때가 가장 행복했던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Q 금메달을 거머쥐기까지 수많은 도전을
거듭해 온 강태석 선수에게 '도전'은 어떤
의미인가요?**

저를 지금에 이르기까지 오게 한 원동력입니다. 기능대회를 준비하며 지치고 힘들 때 '대회 준비 말고 대학교에 진학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든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상디자인은 제가 가장 좋아하고 잘하는 일이기 때문에, 나중에 돌이켜 봤을 때 아쉬움을 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가대표로 선발되기까지 네 차례 도전을 거듭할 수 있었습니다.



Q <월간 내일> 11월호 주제는 '도전'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도전하고 있는 분들에게
응원 한 말씀을 해주신다면?**

도전을 망설이거나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마시고,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다시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대회 준비하다 보면 좋은 대학도 가고 취업도 잘할 수 있겠지' 하는 가벼운 생각으로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도전하다 보니 욕심도 생기고 실력도 늘게 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긍정적인 마음으로 도전하고,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Q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기술은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 상태이니 이제 이론을 많이 공부해서 기술과 접목하려고 합니다. 사실 의상디자인 분야 선수들이 기능대회를 준비하거나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은데,

교육시설을 설립해 후학을 양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기 위해 내년에는 대학교 진학 준비와 외국어 공부를 병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배우고 도전을 거듭하며 제가 가진 기술을 많은 분들에게 전파하고 싶습니다.





학교와 일터를 연결하고, 배움과 근로를 동시에!

일학습병행제는 기업이 청년 취업 희망자를 채용한 후 직무 역량을 교육하는 '일터 기반 학습 시스템'이다. 로얄금속공업(주) 조환희 사원은 일학습병행제를 통해 배움과 근로, 학생과 직장인 사이의 간극을 메우며 빠르게 적응하고 성장할 수 있었다. 기업의 장기적 성장을 이끄는 핵심 인재로 활약하는 조환희 사원을 만났다.

글 김주희 사진 오충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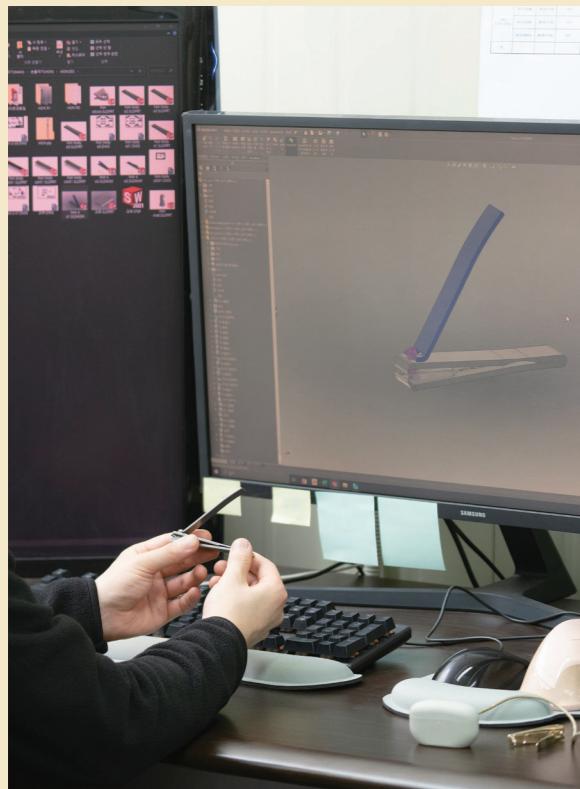
현장 중심 학습과 조기 취업 실현

일학습병행제란, 도제식 교육훈련으로 청년 학습자가 특정 직업에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현장에서 배우고 익히는 직업교육훈련제도다. 취업을 원하는 청년과 학습기업을 매칭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일학습병행 과정이 진행된다. 기업은 현장에 필요한 능력 중심으로 인재를 육성하면서 교육 비용을 절감하고, 청년은 불필요한 스펙 쌓기에서 벗어나 조기 취업하며 실무 능력을 배우게 된다.

금속 전문 제조기업인 로얄금속공업(주)(이하 로얄금속공업)은 손톱깎이와 코털정리기를 주요 생산품으로, 1960년 설립된 이후 국내를 넘어 세계 시장에서 입지를 쌓아왔다. '일학습병행제'를 통해 2020년 입사한 조환희 사원은 품질관리자로 근무 중이다.

"학창 시절부터 기계에 관심이 많았는데, 그 모습을 유심히 본 중학교 선생님이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일학습병행제를 추천해 주셨어요. 고등학교 재학 당시 재학생 유형의 '산학일체형도제'에 참여하며 첫 직장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인한 경영악화로 더이상 일을 할 수 없었어요. 일학습병행을 중도 포기해야 하는 시점에 기업현장교사인 로얄금속공업 김갑수 대표님께서 학업을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고교 단계인 산학일체형도제를 통해 사출금형 제작 L3 교육을 받으며 금형에 대한 구조를 파악하고, 대학 입학 후에는 'P-TECH(고숙련 일학습병행)'를 통해 구조해석설계를 학습했다. 현재는 재직과 동시에 '경력개발고도화'에 참여 중이다. 경력개발고도화는 P-TECH 과정을 이수한



학습근로자가 4년제 학위 연계형 일학습병행 과정의 3학년에 편입해 상위자격(L5) 이상의 훈련 과정을 이수한 후 학사 학위를 취득하는 프로그램이다.

신제품 개발까지, 새로운 도전과 성취

일학습병행제를 통해 이론을 익힌 조환희 사원은 P-TECH 과정 중 하나인 업무개선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코털정리기 접합부의 미세한 벌어짐을 개선하여 덜그럭거리는 소리를 방지하고 제품 불량률을 개선할 수 있었다. 또한 코털정리기 날의 각도를 정교하게 조절하여 회전 수를 늘린 덕분에 제품 완성도를 극대화했다. 이뿐이 아니다. 신제품 개발에도 참여하며 프리미엄 손

일학습병행제에 참여하며 학업과 취업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톱깎이 '흔(HON)'의 설계 작업을 담당하며 힘을 보탰다. 물론 처음부터 쉽지는 않았다. 프로젝트를 시작할 당시에는 '내가 과연 한 명의 직원으로서의 역할을 해낼 수 있을까' 하는 회의적인 시선도 있었다.

"시간이 지나 생각해 보니, 학습자가 고난도 프로젝트 참여하도록 한 이유가 명확해지더라고요. 학생들은 단시간에 실무 역량을 크게 강화할 수 있고, 회사 입장에서도 학생들을 진정한 근로자로 인식하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실제로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자존감도 높아졌고 성격도 긍정적으로 변했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할수록 더욱 몰입했고 꼭 성공시키고 싶다는 자세로 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과물을 보면서 '나도 할 수 있구나',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실무 역량 강화와 정서적인 성장을 동시에 이루는 과정에서 기업현장교사들이 큰 도움이 되었다는 말도 덧붙였다.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내내 김갑수 대표는 학생들과 함께 호흡하며 차근차근 일러주고 머리를 맞대며 같이 고민했다. 그 누구보다 실무 경영의 중요성을 잘 아는 김갑수 대표는 일학습병행제를 도입하며 인재 양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다.

"많은 중소기업이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젊은 인재가 들어와야 기업은 성장할 수 있습니다. 미래세대가 없다면 경쟁력이 저하될 수밖에요. 일학습병행제를 통해 청년들은 자신만의 경쟁력을 연마하고, 기업은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며 모두가 동반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이 곧 국내 산업이 발전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고 생각합니다."

경험을 나누며, 도약을 꿈꾸며

어느덧 입사한 지 5년 차에 접어든 조환희 사원은 품질 관리와 성능 고도화 업무를 담당한다. 최근 그에게 새로운 꿈이 생겼다. 일학습병행제를 통해 배운 구조해석설계와 자동화시스템 이론 그리고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자동화 생산 설비를 도입하는 것이다. 머지않아 1년 안에 손톱깎이 3억 개, 코털정리기 1억 개를 생산할 수 있는 인프라와 기반을 다지겠다는 단단한 각오를 품었다.

조환희 사원은 2025년 3월 경력개발고도화 학사 과정을 마치게 된다. 졸업 후에는 일학습병행제 기업현장교사가 되어 후배 학습근로자들에게 지금까지 배운 기술을 전수하며 이정표 역할을 하고 싶다고 '2024년 일학습병행제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학습근로자 부문 대상을 수상한 그는 미래에 기업현장교사 부문과 학습기업 부문에

서도 좋은 성과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도제 강연을 진행할 때 꼭 당부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나라 남성의 첫 취업 평균 연령이 29세라는 조사 결과가 있는데, 일학습병행제를 통해 18세부터 취업을 할 수 있다고요. 어쩌면 남들보다 5~10년 일찍 출발선에 서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과거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서 대학 입학을 포기하려 했거든요. 일학습병행제에 참여 하며 학업과 취업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청년분들도 일학습병행제를 주춧돌 삼아 밝은 미래를 꿈꾸길 바랍니다!"

방향은 명확하게, 속도는 빠르게. 실무 학습과 초기 취업을 통해 하루하루 성장하고 미래를 개척하는 조환희 사원의 진짜 시작은 이제부터다. 전문가와 핵심 인재로 더욱 높이 도약할 그의 행보를 응원한다.



도전하는 청년의 미래를 위해 청년도전지원사업

청년들은 취업 과정에서 수많은 도전을 하지만, 희망하는 일자리를 찾지 못하거나 취업 기간이 길어질 경우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고용노동부는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구직 의욕과 자신감 향상을 독려하고 취업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도전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정리 편집실 참고 고용노동부



청년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청년도전지원사업

구직에 단념한 청년 등을 대상으로 자신감을 향상하고 취업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 구직의욕을 고취하고 취업 촉진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을 이수 시에는 직업훈련,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을, 취업 시에는 고용촉진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을 연계해 지원한다.

신청 자격

미취업청년

최근 6개월 이상 취업 및 교육·직업훈련 이력이 없고 (단,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진학 및 취업 의지가 낮은 자는 예외), 구직단념청년 문답표 결과 21점 이상인 만 18~34세 청년

자립준비청년

아동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아동보호치료시설·자립지원시설 등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지 5년 이내의 청년 또는 퇴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소일자를 연기한 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청소년쉼터·청소년자립지원관·청소년회복지원시설 등 청소년복지시설을 입·퇴소한 만 18~34세 청년

북한이탈청년

북한을 이탈한 만 18~34세 청년

*구직급여를 받고 있거나 구직급여 지급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고용보험 가입자,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생, 6개월 이내 군인(사회복무요원) 의무복무 예정자는 참여 불가

어떤 프로그램이 운영될까?

청년도전지원사업은 참여하는 청년의 개인별 특성과 필요에 따라 상담부터 동기부여, 진로 컨설팅, 역량 강화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제공한다.

지원 내용

프로그램 유형	지원 기간	프로그램 내용
도전 프로그램	5주 이상	밀착상담, 사례관리, 자신감 회복, 진로탐색,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도전+ 프로그램 중기	15주 이상	'도전 프로그램' 내용을 확대하고, 참여자의 특성 및 요구에 맞는 외부 연계활동 및 프로젝트 기반 자율활동을 추가 운영
도전+ 프로그램 장기	25주 이상	

프로그램 내용

모듈명	프로그램명	내용 예시
밀착상담	기초상담 수시상담	일대일 기초상담, 프로그램 참여 이유 초기상담, 중기상담, 후기상담
사례관리	생활관리 서비스 연계	건강검진 및 생활관리, 생활지원교육프로그램 청년 정책 등 맞춤 정보 제공
자신감 회복	자기이해 동기부여 대인관계이해	성격검사, 심리검사 및 상담 취미여가 활동, 자기주도 프로그램 소그룹 활동, 대인관계 기술교육
진로탐색	자기탐색 직업탐색 진로계획	진로 관련 검사 및 컨설팅 직업정보탐색, 직업체험 진로 목표 설정, 진로계획 수립
취업 역량 강화	구직기초 구직 기술	직업기초능력, 취업이해 면접기술

프로그램 이수하면 참여 수당 지원

청년도전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청년들에게는 프로그램 유형과 활동 내용에 따라 참여 수당이 지급되며, 사업 이수 후 취업하는 청년들에게도 추가로 취업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참여 수당

구분	도전 프로그램	도전+ 프로그램 중기	도전+ 프로그램 장기	
참여 청년	참여 수당	이수 시 50만 원	150만 원 (50만 원×3회)	250만 원 (50만 원×5회)
	이수 인센티브	없음	이수 시 20만 원 · 이수 시 20만 원 · 취업 관련 활동 시 30만 원	
	취업 인센티브	없음	이수 후 6개월 이내 취업하고 3개월 근속 시 50만 원	이수 후 6개월 이내 취업하고 3개월 근속 시 50만 원

이수 인정 기준

도전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1개 이상의 필수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운영기간 동안 총 편성 시간의 80%의 프로그램을 마친 경우 프로그램 참여 중 취업 또는 창업을 한 경우
도전+ 프로그램 중기·장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월[회차] 단위 이수 기준을 모두 충족하거나, 전체 편성 시간의 80%(유형 중기는 96시간 이상, 유형 장기는 160시간 이상)의 프로그램을 마친 경우 프로그램 참여 중 취업 또는 창업을 한 자가 전체 운영기간 동안 총 편성시간의 50%를 경과한 경우

어떻게 신청하고, 어떻게 진행될까?

신청 자격을 확인해 참여를 신청한 후, 구직준비도 검사와 상담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유형이 구분되며 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있다. 프로그램 종료 후 희망할 경우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해 종합 취업지원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진행 체계

- ① 참여 신청
신청 자격에 해당하는지 확인 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
- ② 참여 유형 구분
구직준비도 검사 및 상담을 받고, 결과에 따라 도전, 도전+ [중기·장기]로 구분
- ③ 프로그램 이수
유형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 이수
- ④ 국민취업 지원제도 참여
프로그램 이수 후, 희망할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해 취업활동계획 수립 및 종합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

- | | |
|------|---|
| 온라인 | 고용24(www.work24.go.kr) → 취업지원
→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 신청 |
| 오프라인 | 지방자치단체 청년센터 방문
(사업 운영기관은 고용24 누리집에서 확인) |





직업상담사로 재취업 성공 '내일'로 꽂피운 新중년 인생!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우수사례자 **최성숙 씨**

흔히 40~50대를 인생의 황금기라고 하지만, 퇴직한 중년들의 고민은 끝 수밖에 없다. 퇴직 후 공백기를 가진 최성숙 씨 또한 재취업이 막막하게만 다가왔다. 늦은 나이라는 불안을 딛고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하며 새로운 중년 인생을 연 그녀에게,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과 함께한 인생의 봄날은 다디달다.

글 김주희 사진 박시홍



제2의 출발점에 서다

최성숙 씨는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 민간위탁기관에서 직업상담사로 활동 중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상담을 비롯해 제도 홍보, 행정 관리 등의 업무를 도맡고 있다. 올해 1월에 입사한 신입 직업상담사로, 그 열정은 누구보다 뜨겁다. 누군가의 직업을 찾아주는 일에 진심과 열정을 다한다.

최성숙 씨는 지난 2014년 직장 생활을 뒤로하고 엄마 역할에 충실히 해야 했다. 아이가 자란 후 재취업을 시도하고 싶었지만, 다시 직업을 찾기란 쉽지 않았다. 그동안 세상은 빠르게 변했고, 무엇을 해야 할지부터 막히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지인으로부터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을 제안받았다.

"외향적이고 타인의 말을 잘 들어주는 제 성향과 직업상담사가 잘 맞을 것 같다며 과정평가형 직업상담사 1급 취득 과정을 추천해 줬어요.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직업상담사라는 직업이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직업상담사에 대해 찾아보면서 제 열정에 불이 지펴진 것 같았어요? ‘평생 할 수 있는 ‘내 일’을 갖기란 참 힘들구나’라는 생각에 사로잡혔을 때, 만난 기회가 간절하고 소중하게 다가왔어요. 꼭 참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의 교육·훈련 과정을 거쳐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다. 학력이나 경력 요건 등이 필요한 검증형 국가기술자격과 달리 별도의 응시 자격이 없기 때문에 해당 분야 초보자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상위 등급의 자격 취득도 가능하다.

현장 실습으로 더 가까워진 꿈

교육 기간은 총 6개월. 충북 청주에서 충남 천안에 위치한 학교로 오가며 하루 8시간 교육에 참여했다.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은 현장 중심의 교육·훈련으로 이뤄진 것이 특징. 취업 후 현장에도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실무 업무를 익히는 과정이 마련된다. 최성숙 씨 또한 2주간의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라는 말이 있듯, 재취업으로 고민하는 분들도 주저하지 말고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장 실습에 참여했다. 실제 직업상담기관에서 생생하게 업무를 경험할 수 있었다.

“책에서만 봤던 내용을 현장에서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실습 마지막 날에는 ‘직업상담사의 하루’라는 주제로 일과를 함께하기도 했습니다. 실습 기간 중 대학교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홍보하는 업무에 함께 투입된 것도 기억에 많이 남아요. ‘직업상담사는 상담뿐만 아니라 국민이 제도를 알 수 있도록 홍보·모집하는 것도 중요하구나’, ‘직업상담사는 시작부터 취업까지 개입하며 멀티플레이어 역할을 해야 하는구나’를 깨달았습니다. 실습을 하면서 현장에서 빨리 활약하고 싶어졌어요. 의지를 더욱 단단하게 다지게 되었습니다.”

2023년 9월, 드디어 자격증을 취득하고 이제 취업의 문을 두드릴 차례가 왔다. 하지만 열정 만큼이나 불안감도 커져갔다. 자격증은 있었지만 경력이 없는 터라 잘 해낼 수 있을지, 혹여 나아가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지, 고민이 많았다. ‘취업을 하고 싶지만 취업을 안 하고 싶은 이중적인 마음’이 앞섰던 것. 남편과 아이들, 가족의 든든한 응원에 힘입어 도전한 결과, 재취업에 성공하고 본격적으로 직업상담사의 길로 접어들었다.

‘내 새끼’ 청년의 미래를 열다

최성숙 씨가 담당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대부분 청년이다. 대학 졸업 예정자나 사회 초년생과의 대면 상담이 많은데, 자신부터 마음을 열고 특유의 친근함과 유쾌함으로 다가가는 중이다.

“참여자와의 라포 형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재취업을 시도하며 겪은 경험들을 적정선에서 노출하면서 유대감을 강화하고 공감대를 이끌어내죠. 청년층 참여자를 ‘내 새끼’라고 표현할 정도로 애정이 많아요. 엄마의 마음으로 자식이 좋은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미래를 잘 설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지난 10개월 동안 다양한 참여자와 함께한 최성숙 씨.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가 “선생님 덕분에 성장할 수 있었다”는 인사를 전해올 때만큼 큰 행복은 없다고. 참여자를 통해 되레 초심을 떠올리기도 한다. 형식적인 상담사로 넘어가는 건 한순간, 초심을 잊지 않고 오래오래 직업상담사로 활동하는 것이 꿈이다. 꾸준히 역량과 전문성을 높이며 취업 및 직무 강연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싶다는 바람도 밝혔다. 현재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또 다른

배움에도 열심이다.

“인생을 되돌아봤을 때 작년만큼 유의미했던 시절이 또 있을까, 싶어요. 오랜 지인들이 반짝이는 예전 모습을 되찾은 것 같다고 하는데요.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과정을 통해 삶이 180도 달라진 것 같아요. 아침에 출근하는 매일 매일이 새롭습니다.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라는 말이 있듯, 재취업으로 고민하는 분들도 주저하지 말고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에게 꼭 맞는 옷을 입은 사람을 보면 기분이 좋아진다. 최성숙 씨가 그렇다. 절망과 불안이라는 벽을 딛고 재취업에 성공한 자신처럼 누군가의 미래를 활짝 열어주는 일. 직업상담사라는 이름으로 ‘나의 앱’을 되찾은 그녀는 누구보다 빛나는 중이다. ‘중년이야말로 인생의 황금기’임을 증명해 낸 그녀의 봄날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쉽고 간편하게 이용하는 취업 똑·똑 온라인 서비스

고용노동부가 9월 24일부터 '취업 똑·똑' 온라인 서비스를 시작했다.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고용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취업 똑·똑'의 서비스 내용과 이용 방법을 알아본다.

글 편집실 참고 고용노동부



언제 어디서나, 맞춤형 고용서비스 이용

'취업 똑·똑' 서비스는 취업·재취업 등 고용서비스가 필요한 구직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구직 준비 중인 청년, 새 출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등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고용노동부 누리집(<https://www.moel.go.kr/>)에 게시한 알림판,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누리집(<https://www.workplus.go.kr/>)에 게시된 퀵메뉴를 클릭하거나 QR코드에 접속해 자신의 특성과 상황 등을 자가 진단한 후, 원하는 상담 방식(전화 또는 대면)으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담당자로부터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취업 준비에 망설여지는 구직자는 고용노동부의 '취업 똑·똑' 서비스에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똑·똑' 노크하면, 자신의 특성과 상황에 적합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똑·똑'하게 추천·지원받을 것이다.

취업 똑·똑 이용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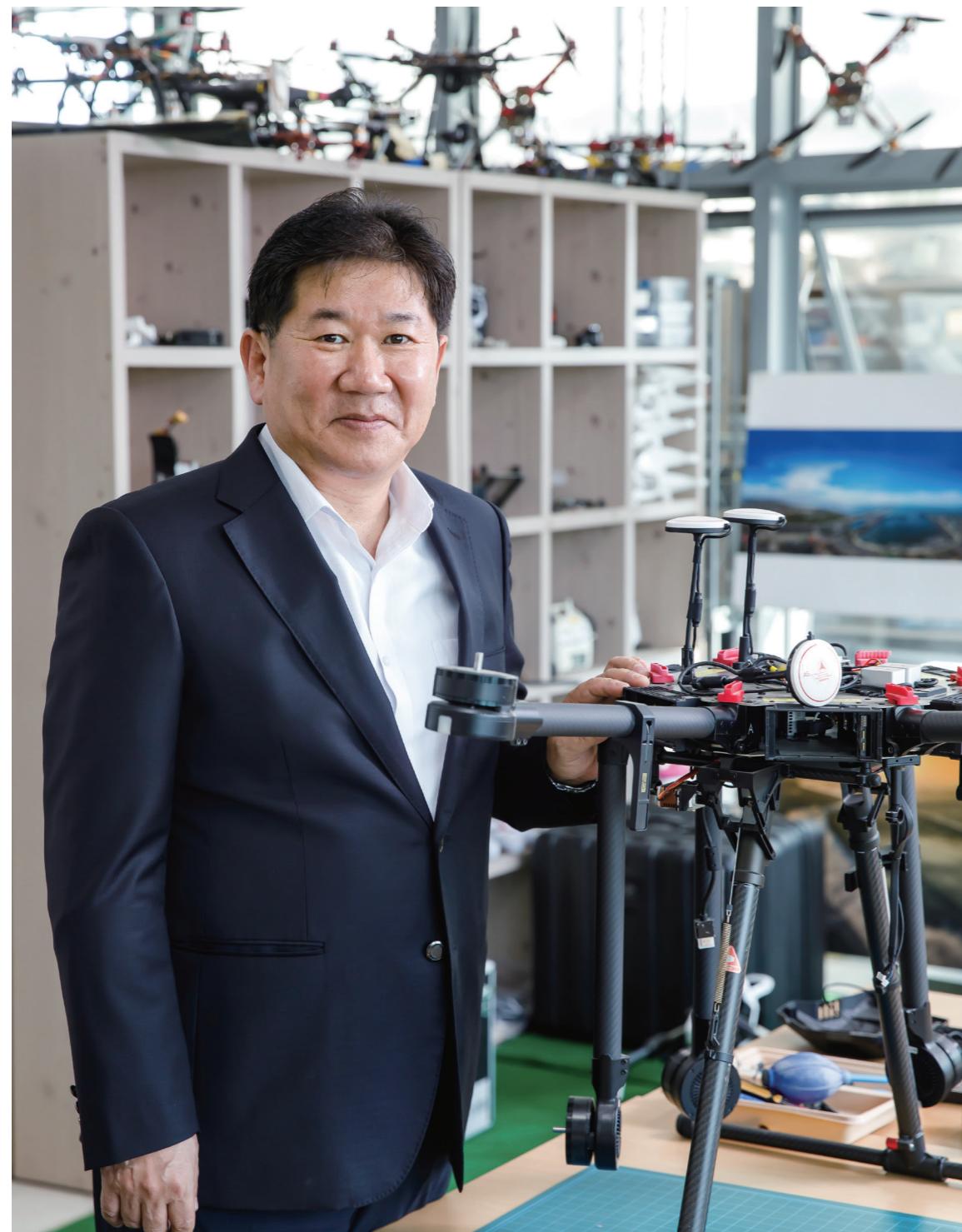
- 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누리집 퀵메뉴 '취업 똑·똑' 클릭 또는 스마트폰 카메라로 QR코드 스캔



- ③ 내게 맞는 서비스 추천받고 상담 신청



- ④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담당자가 전화 상담 또는 대면 상담 진행



더 정교하게 진화하는 드론 산업 무한한 가능성을 품다

박석종 한국드론산업협회장

드론이 우리의 일상을 바꾸고 있다. 첨단 기술의 집약체로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혁신을 이끌며, 그 기술은 나날이 진화하는 중이다. 새로운 가능성과 잠재력을 품은 드론 시장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과 '해야 할 일'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한국드론산업협회 박석종 협회장에게 듣는 드론 산업의 오늘과 내일.

글 김주희 사진 김경수

Q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을 많이 접하게 된 것 같습니다. 현재 드론은 어떻게 활용되고 있나요?

드론은 헬기와 카메라의 합성어인 '헬리캠'이라는 용어로 많이 알려진 후, 2017년을 기점으로 다른 산업 및 기술과 융복합되면서 폭넓은 분야에서 활용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크게 네 가지 분야로 나눌 수 있는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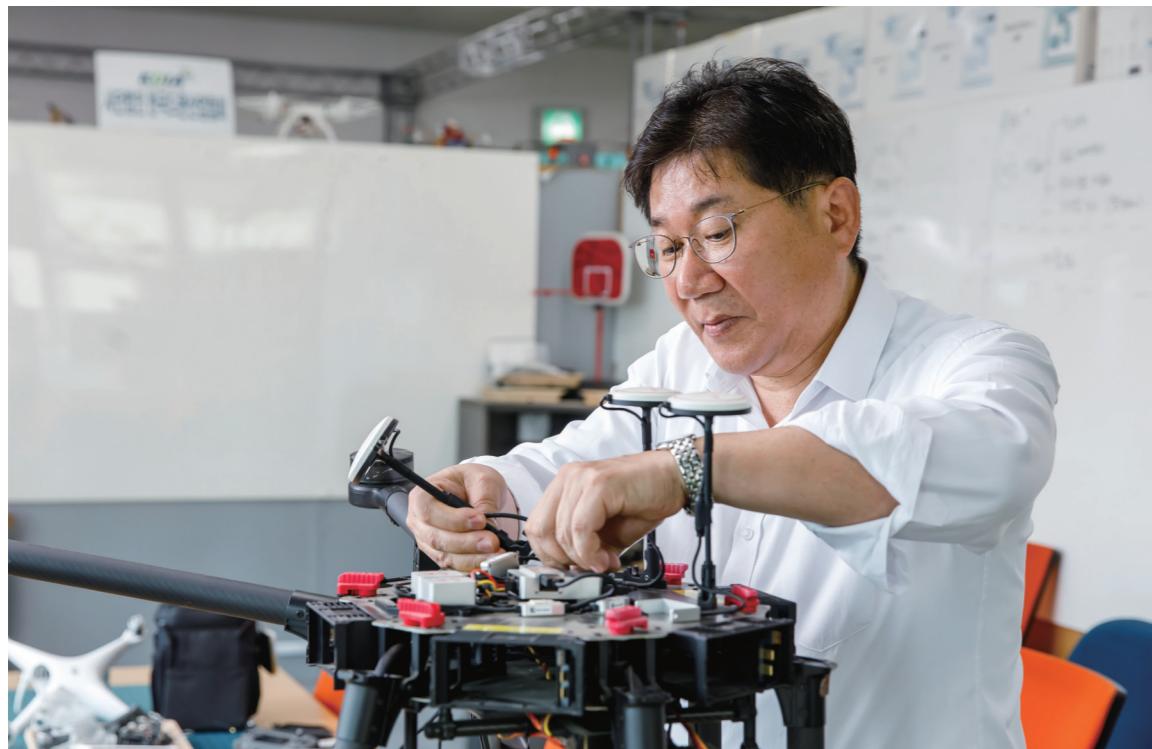
정찰, 감시 및 공습 등 군사 작전에 활용되는 '군사'용, 물류 및 건설, 측량 등에 사용되는 '산업'용, 군집비행 및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로 활용되는 '상업레저'용 그리고 드론 산업이 발전하면서 부가적으로 필요로 하는 '서비스' 분야도 발전하는 중입니다. 드론으로 인한 보안 침해 문제 발생 시 이를 방어하는 안티드론 시스템 등이 서비스 분야에 해당합니다.

Q 한국드론산업협회의 역할과 주요 활동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협회를 설립할 당시부터 '드론이 사람에게 이로운 도구'가 되는 것을 이정표로 정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교육, 연구, 창업지원 등의 활동을 이어오고 있어요. 특히 스타트업이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창업 및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적극적으로 개최해 왔습니다. 또한, 성장 가능성을 지닌 기업을 발굴하고 중국 및 일본 해외 진출을 추진하는 등 글로벌 시장에서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방정부가 드론 택배나 드론안전관리 서비스를 추진할 때 적절한 기업을 연결해 주고 기술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등 다각도로 지원하는 중입니다.

Q 2025년부터 국내에서 도심항공교통(UAM) 실증을 추진할 예정인데요. 드론 택시 실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드론 택시가 안전한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기까지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드론이 교통수단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안전 검증 단계가 미흡하면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전 세계적으로 실증 사업이나 시범 운행을 시도하되 상용화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는 이유입니다. 실증 사업 이후 며지않아



드론 택시 시대가 도래할 것입니다. 충분한 검증을 통해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드론 간의 충돌 방지, 비행 경로 최적화 등을 위한 항공교통관리시스템 그리고 보안시스템도 함께 고도화해야 합니다.

Q 국내 드론 시장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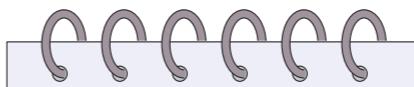
국내 드론 업체 중 교육 분야가 약 60%를 차지합니다. 나머지 40% 정도는 드론 제조 및 드론 활용 업체입니다. 단순히 비행체라는 틀에 갇히지 않고 다른 분야나 기술을 접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면 우리만의 경쟁력을 강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테면, 건설사의 경우 인력에 의존했던 건축물 비파괴검사를 드론을 활용해 수행합니다.

작업 위험성이 높은 바닷가 교량 검사에 드론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경계를 허물고 새로운 가치와 서비스를 창출할 때 비로소 우리만의 차별화를 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Q 드론 산업에 취업을 고민하는 이들이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최근 급격한 기술 발전에 따라 드론을 AI, 센서 등 첨단기술과 결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성능이 더욱 고도화되고 있는 거죠. 미래 드론 취업 시장 역시 현업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이를테면 시설물 점검업체의 경우 드론으로 외벽을 촬영하며 균열이나 손상 여부를 촬영합니다. 이때 촬

드론 산업 전문가를 꿈꾼다면, 즐기는 자세를 가졌으면 합니다. 차츰 역량을 강화하고 하나씩 과제를 해결하고 결과물을 만들다 보면 전문가가 되어 있을 거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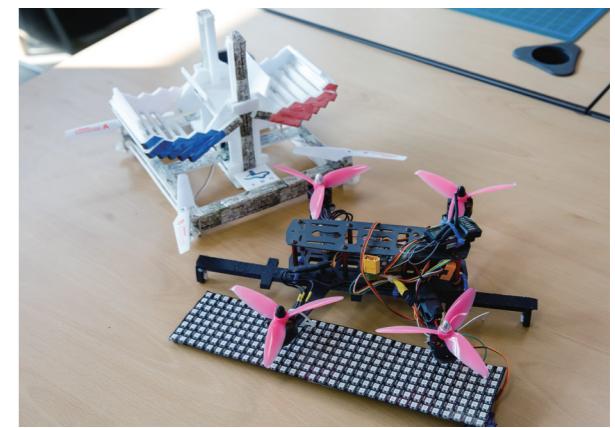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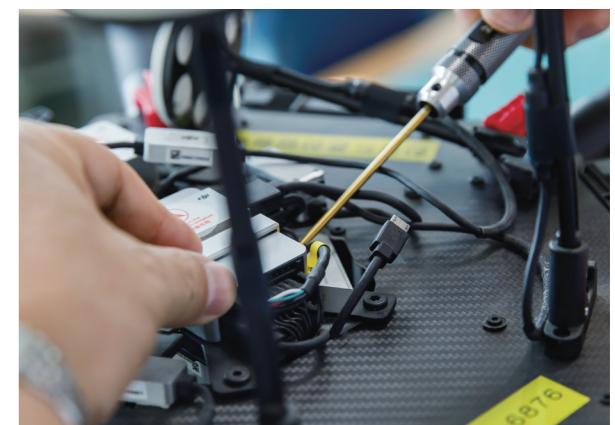
드론 산업 종사자가 되기 위한 기본 상식

드론 산업 취업 분야

과거 군수산업 중심으로 드론을 활용한 것과 달리 최근에는 측량, 안전, 교통, 공연, 방송, 농업, 물류 및 운송, 건설 등 폭넓은 산업과 드론을 연계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취업 분야도 다양화되고 있다.

드론 전문가 관련 자격증

국가전문자격증인 '초경량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 조종자는 소형 드론 조종 능력을 검증하는 자격증으로 무게 중량에 따라 1~4종으로 나뉜다. 드론 산업에 종사하기 위해서 반드시 자격증을 획득하지 않아도 된다. 드론 활용 분야가 매우 다양하므로 자신의 적성에 맞춘 분야를 결정하고 현장 및 실무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대재해 사이렌 안전한 일터의 시작!

산업재해는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사업장에도 큰 손실을 초래합니다. 특히 중대재해는 그 영향이 더욱 심각하여 산업 전반에 걸쳐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예방과 경각심 고취를 위해 매달 중대재해 발생 현황을 알리는 새로운 콘텐츠를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글 이슬 고용노동부 정책기자단 16기 참고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사이렌이란 무엇인가?

'중대재해 사이렌'은 고용노동부가 2023년 2월부터 오픈채팅방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중대재해 동향 공유 플랫폼입니다. 이 플랫폼은 '전국 중대재해 발생 동향과 예방 대책', '계절·시기별 산업현장의 위험 요인'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며,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빠르게 정보를 접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돋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 83개의 오픈채팅방을 운영 중이며, 가입자 수도 7만 명을 돌파하며 대한민국의 안전 공유 대표 채널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중대재해 사이렌'을 검색하시면 각 지역별로 오픈채팅방이 개설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 발생!

중대재해 사이렌 정보 공유 방식은 카드뉴스 공유입니다. 카드뉴스에는 언제, 어디서, 어떤 형태의 산업재해가 발생했는지가 기재되어 있으며 더 나아가 해당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는지 예방대책도 기재되어있기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지침과 자료를 제공하여 안전한 산업현장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더하여 중대재해 사이렌의 정보는 오픈채팅방뿐만 아니라 매달 고용노동부 포털에도 게시되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 사이렌 정보를 통해 전국의 사업장과 근로자들은 최신 중대재해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예방 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 사이렌은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현장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예방 조치와 안전 지침을 공유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23 중대재해 사이렌 책자 첫 발간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1일, 지난 한 해 동안 '중대재해

사이렌'으로 배포한 모든 자료를 한 권에 모은 「2023 중대재해 사이렌」 책자를 발간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책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지침과 자료를 제공하여 안전한 산업현장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고용노동부 사이트(https://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240400039)에서 다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주변 현장의 안전 개선 가능성 진단 및 긍정적 변화 기대

중대재해 사이렌에 관한 기사를 작성하기 위해 곳곳의 공사 현장을 방문하면서 공사 현장에서의 중대재해 위험 요소를 직접 확인해보았습니다. 일부 현장에서는 안전 장비 미착용, 불완전한 추락 방지 시스템 등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중대재해 사이렌의 알림 내용이 더 많은 사업장에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다면, 보다 안전한 작업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위험 요소들은 알림 콘텐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깨닫게 해주었고,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중대재해 사이렌 콘텐츠가 더욱 널리 확산되어 사업장과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안전 지침을 준수할 때, 보다 안전한 작업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용노동부 정책자료실 '24년 8월 중대재해 사이렌(오픈채팅방) 자료'

'한국의 피아제'로 불린 산책의 길

가장 멋진 동네

성수동을 가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동네를 말하라면,
이 동네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이다.
붉은 벽돌 건물이 시선을 사로잡고
거리에 멈춰서 사진을 찍는 사람들의 모습이
낯설지 않은 동네, 성수동이 그 주인공이다.

글 김민영 사진 정우철



성수동 이름 뒤에는

서울시 성동구에 위치한 성수동은 그 야말로 요즘 가장 뜨거운 동네다. 한강과 중랑천이 접하고 있고, 인근에는 서울숲이 있어 살기 좋은 동네이기도 하다.

'성수'라는 이름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전해진다. 첫 번째는 옛날 '성덕정'이라는 이름의 정자와 서울 최초로 설치된 수원(水源) 시설인 '뚝도수원지'가 있었던 곳이어서 글자의 첫머리를 따 '성수'라고 했다는 설이다. 두 번째는 한강물을 식수로 사용하는 마을이라서 '깨끗하고 고마운 물'이라는 의미의 '성수'를 붙였다는 설이다.

성수동의 가장 번화한 길인 '연무장길'은 역사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조선시대 왕들은 성수에서 매사냥을 자주 했는데, 병사들이 훈련하는 연무장을 이곳에 두었다고 한다. 그 당시의 이름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한국의 브루클린, 성수동



지금이야 살기 좋은 동네로 손꼽히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성수동은 공장 지대였다. 2010년 이전까지만 해도 서울의 공장지대를 생각하면 성수동을 떠올릴 정도였다. 그러다가 2010년 이후부터 다수의 IT기업이 성수동에 터를 잡으면서 IT산업단지가 형성되었다. 특히 구두를 만드는 곳이 많았던 성수동 공장지대에, 고급 주택과 대형 문화·상업 시설이 들어서는 젠트리피케이션이 진행되면서 공장지대는 '성수동 수제화거리'라는 이름으로 재탄생하게 된다. 1970년대 이후부터 모여들었던 수제화 업체들은 지금까지도 이 거리에서 터를 지키며 생업을 이어나가는 중이다. 성수동 거리를 거닐면 보이는 구두 모양의 조형물이 '수제화의 성지'였음을 짐작게 한다.



'세계에서 가장 멋진 동네'에 이름을 올리다

다양한 변화를 겪은 성수동의 인기는 지금이 가장 절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많은 아티스트와 크리에이터가 활동하는 창작의 공간이며, 공장을 개조한 갤러리, 스튜디오, 카페들이 즐비한 개성 넘치는 공간이기도 하다. 서울숲을 끼고 아파트 단지가 형성되어 주민들에게 쉼을 선사하는 곳으로 자리 잡기도 했다. 퇴근 후나 주말에 서울숲을 찾으면 반려견이나 가족들과 함께 편안한 복장으로 산책을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서울숲에서 쉼을 얻고 가는 건 주민들 뿐만 아니라 성수동 나들이를 왔다가 서울숲까지 와서 여유를 즐기거나 계



새로움을 제시하는 무언가를 일컫는 점사이인 '힙(HIP)'이 전통(TRADITION) 앞에 떄하니 붙었다.

전통문화를 '힙한' 콘텐츠로 여기고 이를 적극적으로 경험 및 소비하는 트렌드인

'힙트레디션(HIP TRADITION)'이 대세로 자리 잡은 것이다.

글 강진우

낡은 옛것에서 트렌디한 전통으로

힙트레디션

전통문화의 매력에 물들다



요즘 고궁을 찾는 젊은이들이 부쩍 늘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복 입고 경복궁 투어'는 외국인들의 전유물이었지만, 요즘 경복궁을 둘러보면 한복 입은 이들 중 상당수가 우리나라 MZ세대다. 이들은 크게 두 갈래로 고궁을 즐긴다. 인근에서 대여한 한복을 입고 가벼운 마음으로 궁궐 곳곳을 거닐며 사진을 찍고 SNS에 업로드하는 부류가 있는가 하면, '창덕궁 달빛기행', '경복궁 생과방'과 같이 고궁의 예스럽고도 새로운 면모를 한결 깊이 틀어보고 당시의 문화를 직접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다. 방식은 다르지만, 전자와 후자 사이에는 분명한 공통점 하나가 존재한다. 수백 년간 이어져 온 국가유산을 참신한 경험의 장으로 여긴다는 것이다.

국가유산을 축소해 만든 이른바 '국가유산 굿즈'의 인기도 심상치 않다. 국립중앙박물관의 대표적 굿즈인 반가사유상 미니어처는 특유의 미학으로 입소문을 타고 있었는데, 그룹 BTS 멤버 RM의 작업실에 해당 굿즈가 놓여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다. 최근 한 백화점의 팝업스토어에서 판매된 백제금동대향로 미니어처도 10만 원에 달하는 가격에도 불구하고 '완판'됐다. 전통문화의 미학이 MZ세대를 매료시키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는 대목이다.

오늘날에 맞춰 재해석된 전통문화

전통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소비하는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 지난 10월 덕수궁 돈덕전에서는 '미키 in 덕수궁: 아트, 경계를 넘어서' 특별전이 열렸다. 우리에게도 익숙한 만화 캐릭터인 '미키와 친구들'이 전통 의상을 입고 조선 왕실 유산을 배경으로 다채롭게 움직이는 모습을 작품화한 이번 특별전을 보기 위해 수많은 MZ세대가 돈덕전에 모여들었다. 만화 캐릭터와 국가유산의 오묘한 조화가 관람객들의 감탄사를 자아냈다는 후문이다.

전통시장도 유행에 민감한 이들이 즐겨 찾는 장소로 변모하고 있다. 오래 전부터 존재했지만 MZ세대에게는 생소한 먹거리와 놀거리가 이들을 불러 모으는 원동력이다. 특히 먹거리 야시장 느낌으로 리뉴얼된 충남 예산시장, 시장 분위기를 해치지 않는 전통적 디자인으로 꾸며진 글로벌 커피 프랜차이즈 지점을 들인 경동시장 등 시대상을 반영해 적절한 수준의 변화를 시도한 전통시장에 더 많은 MZ세대가 몰리고 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과 열광이 전통문화 그 자체가 아닌, 개성 있는 콘텐츠와 경험에 대한 갈증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기에 조만간 사그라들 거라는 부정적 전망도 존재한다. 하지만 MZ세대가 전통문화의 매력에 빠졌다가는 점, 그리고 이들이 전통문화 경험을 토대로 전통과 새로움이 조화된 새로운 무언가를 탄생시킬 것이라는 점만큼은 분명한 사실이다.

힙트레디션 사례



경복궁 생과방

왕과 왕비의 별식을 준비 하던 장소인 경복궁 생과방에서 이들이 실제로 먹었던 병과와 약치를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된 체험 프로그램이다.



반가사유상 미니어처

반가사유상을 고스란히 축소해 만든 국립중앙박물관의 대표 굿즈로, 반가사유상 특유의 유려한 곡선미가 보는 이들을 매료시킨다.



개성주악

찹쌀가루와 밀가루에 막걸리를 넣고 반죽한 다음 기름에 지진 뒤 꿀이나 조청을 입힌 개성주악은 MZ세대에게 인기 높은 간식이다.

01

전년 대비 공시기업· 공시근로자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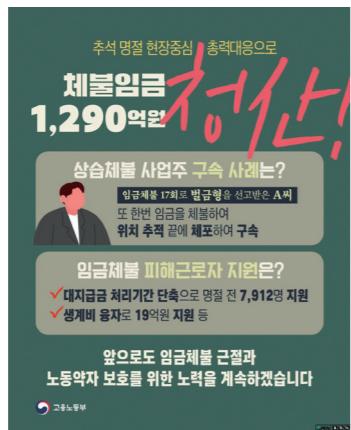


고용노동부는 상시 3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24년 고용형 태공시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형태(3월말 기준)를 공시한 기업은 총 4,057개(공시율 99.8%)로, 전년 대비 170개 기업이 증가했고 증가 추세를 지속했다.

올해 공시기업이 공시한 근로자는 총 5,765천 명으로 전년 대비 174천 명이 증가했으며, 공시근로자도 공시기업과 마찬가지로 증가 추세를 지속했다. 올해 공시기업이 공시한 소속 근로자는 총 4,743천 명(+177천 명)으로 공시근로자 중 82.3%(+0.6%p)를 차지해 규모·비중이 모두 증가했다. 반면, 공시기업이 공시한 소속 외 근로자는 총 1,022천 명(△3천 명)으로 공시근로자 중 17.7%(△0.6%p)를 차지해 규모·비중이 모두 감소했다.

02

추석전 집중지도기간 체불임금 1,290억 원 청산



고용노동부는 추석 전 3주간(8. 26~9. 13.)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한 결과, 근로감독관의 지도 해결로 811억 원과 대지급금 479억 원 지원으로 체불임금 1,290억 원을 청산했다. 이와 더불어, 기관장의 현장 지도(217억 원)와 근로감독(39억 원)을 통해 256억 원이 현장에서 추가로 청산됐다. 이번 추석에는 예년과 달리 신고사건 처리 위주의 관행에서 벗어나 기관장(청장·지청장)이 현장 청산지도, 사업장 감독 등 4,744개 현장을 직접 방문했다. 또한, 전국의 모든 근로감독관이 4,457개소 사업장을 찾아가 임금체불

근로감독을 실시해 65억 원의 체불을 적발해 현재까지 39억 원을 청산했으며,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근로자에 대한 지원(519억 원, 8,522명)도 이뤄졌다.

03

육아휴직 급여인상 등 시행령 입법예고



고용노동부가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및 고용잔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10월 10일부터 오는 11월 19일 까지 입법예고한다. 먼저, 현재 월 150만 원인 육아휴직급여를 내년에 대폭 인상해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하고, 사후지급 없이 육아휴직기간 중 전액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 부담을 덜기 위해 출산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시 육아휴직을 통합신청 및 서면 허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체인력 지원금을 현재 월 80만 원에서 월 120만 원으로 인상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있어 내년 초 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04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 개시



퇴직연금 가입자가 기존의 운용 상품을 매도(해지)하지 않고, 퇴직연금 사업자만 바꿔 이전 가능한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가 10월 31일부터 개시됐다. 기존에는 퇴직연금 계좌를 타 사업자로 이전하려면 중도해지 금리, 금융시장 상황 변화로 인한 손실

등이 발생할 수 있었지만,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계약이전 시 가입자가 부담하는 손실이 최소화되고, 사업자 간 서비스 기반의 견전한 경쟁이 촉진돼 퇴직연금 수익률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실물이전 형태로 퇴직연금 계좌를 이전하려는 퇴직연금 가입자는 새롭게 계좌를 옮기고자 하는 퇴직연금 사업자(수관회사)에서 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한 후 이전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다. 보유한 상품의 실물이전 가능 여부를 신청 전 조회 가능한 '사전조회 기능'도 곧 오픈할 예정이다.

05

**「육아지원 3법」
시행 전 일하는 부모
간담회 개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내년 2월 시행 예정인 「육아지원 3법」 시행 전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10월 16일 판교세븐벤처밸리 어린이집에서 일하는 부모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고용노동부는 내년 일·육아지원제도 확대를 위해 일·가정 양립 지원 예산을 올해 2.7조 원에서 4.4조 원 규모로 대폭 확대해 편성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자녀의 병간호 등 육아휴직 제도의 탄력적인 활용, 남성

육아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확대 등의 요구가 있었다. 이에 김문수 장관은 단기 육아휴직 도입과 출산 전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배우자의 임신 중 육아휴직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1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 누구나 일·육아 지원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대체인력지원금과 업무분담지원금 확대 계획도 전했다.

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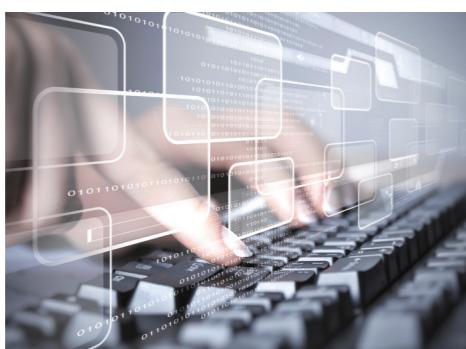
**「직업안정법」
일부개정안
심의·의결**



정부는 10월 22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직업안정법」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그간 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에 따라 국내 직업소개사업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국외 직업소개사업은 고용노동부에 등록 또는 신고를 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국외 직업소개사업 등록·신고 등 관련 권한을 고용노동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고, 국내·외 직업소개사업자에 대한 관리 주체를 지방자치단체로 일원화해 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신청자의 편의를 제고했다.

**06**

**소규모 사업장에
인사관리(HR)
플랫폼 무료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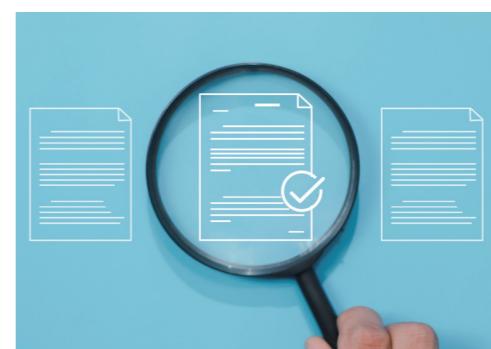


고용노동부는 10월 17일 인사관리(HR) 플랫폼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소규모 사업장 500개, 약 1만 명 근로자가 출퇴근 기록, 급여 정산 등 인사 업무를 쉽고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돋는 인터넷 기반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인사관리 전담 인력이 없는 소규모 사업장이 인사관리 플랫폼을 활용하면 노동법을 쉽고 정확히 준수할 수 있고 근로자는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는 등 권리 보호가 강화된다. 이처럼 체계적인 인사관리가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신뢰를 높여 기업 경쟁력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플랫폼 이용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11월 30일까지 네이버 품(<https://naver.me/FBeM10PL>)을 작성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08

**「유연근무 활용
매뉴얼」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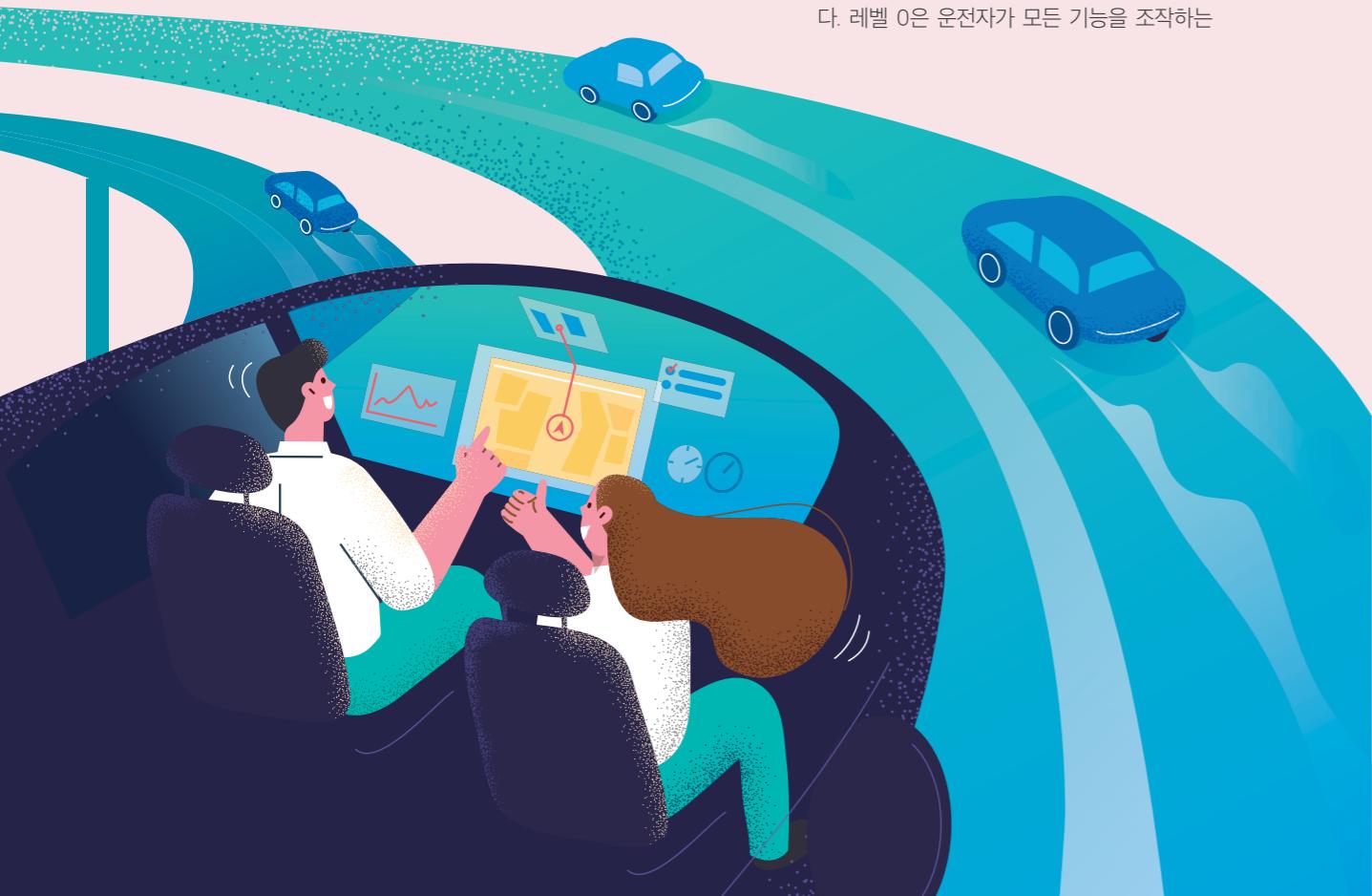


고용노동부는 유연근무에 대한 사업주와 인사 담당자의 고민을 덜기 위한 취지로 '일·생활 균형을 위한 유연근무 활용 매뉴얼'을 발간·배포했다. 유연근무는 일·가정 양립과 일·생활 균형, 기업 경쟁력 확보와 저출생 해소의 방안 중 하나로 지속적인 관심을 받고 있으나, 방법을 모르거나 인사·노무관리 부담으로 도입을 망설이는 기업이 여전하다. 이러한 기업들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제작한 이번 매뉴얼에는 시차출퇴근, 선택근무제, 재택·원격근무, 근로시간 단축제를 소개한다. 매뉴얼은 사업주 단체, 고용센터 및 관계부처, 유관기관 등을 통해 전국 주요 사업장에 안내될 예정이며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과 일·생활 균형 누리집(www.worklife.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흔히 '반자율주행'이라 불리는 주행 보조 시스템이 보편화된 가운데, 운전자의 개입 없이 스스로 목적지까지 운행하는 자율주행 기술 또한 꾸준히 발전 중이다. 자동차와 IT 강국인 우리나라도 그 선두 그룹에 속해 있다.

글 강진우

주행 보조를 넘어 운전자 없는 운행으로 자율주행



코앞으로 다가온 자율주행 시대

지난 10월, 세계 1위 전기차 기업이 완전자율주행 무인택시를 공개하고 2026년 출시를 공언함에 따라 자율주행에 대한 세상의 관심이 부쩍 늘었다. 미국자동차공학회(SAE)는 자율주행 기술을 0~5단계까지 총 6단계(레벨)로 구분했으며, 이는 국제적 기준으로 통용되고 있다. 레벨 0은 운전자가 모든 기능을 조작하는

단계, 레벨 1은 주행 시 운전자를 도와 속도·제동을 일부 제어하는 '운전자 지원 주행', 레벨 2는 자동차의 속도와 방향 제어가 가능한 '부분 자동화 주행'이다. 현재 많은 운전자가 활용 중인 주행 보조 시스템이 레벨 2에 속한다.

진정한 의미의 자율주행 기술은 레벨 3부터라고 할 수 있다. 레벨 3은 시스템이 주행을 담당하며 위험시에만 운전자가 개입하는 '조건부 자동화 주행', 레벨 4는 비상시에도 시스템이 주행을 책임지는 '고도 자동화 주행', 레벨 5는 운전자와 운전대·페달 등 조작 부품이 전혀 필요 없는 '완전 자동화 주행'이다.

자율주행 선진국인 미국은 2009년부터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등 일부 도시에서 레벨 5 수준의 완전 무인 자율주행택시를 운영 중이며, 운행 가능 구역을 미국 전역으로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자동차와 IT 선진국으로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모두 갖춘 우리나라도 자율주행 시대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자율주행 대중교통수단을 점차 늘리는 추세다.

우리나라를 누비는 자율주행 기술

국토교통부는 2022년 12월 국내 최초로 오송역과 세종시외버스터미널을 잇는 22.4km 길이의 간선급행버스(BRT) 구간에 BRT 전용 자율주행버스를 투입했다. 경기 성남시는 2023년 7월부터 판교 지역을 순회하는 자율주행 버스를 도입, 올해 10월부로 누적 이용객 수 48,000명을 돌파했다. 경남 하동군도 지난 10월 농촌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자율주행 시내버스를 도입함으로써 주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을 도모했다.

서울시는 올 9월 국내 최초로 심야 자율주행택시 운행을 시작했다. 복잡한 강남, 서초의 도로를 운행하며 모든 데이터를 바탕 삼아 안전성을 높이고 운행 가능 구역을 지속적으로 넓힐 계획이다. 한편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농기계 기업들도 작업 경로 오차 범위 7cm 이내의 이앙기·콤바인 등을 출시했으며, 한 자율주행 선제조기업은 지난 8월, 12인승 소형선을 한강 내 16km 구간에서 자율 운행하는 데 성공했다. 이렇듯 우리나라의 자율주행 기술력이 다방면에 걸쳐 향상되면서, 전국 여러 지역에서 활용되고 있다.

많은 사람이 자율주행 기술의 안전성에 대해 의구심을 갖지만, 실제로는 사람이 운전하는 것보다 더 안전하다는 조사 결과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미국의 자율주행 택시 기업이 미국 3개 도시에서의 약 1,147만km 주행 기록을 분석한 결과, 사람 운전자는 100만 마일당 평균 2.78건의 사고를 낸 반면 자율주행택시의 사고 건수는 0.41건에 불과했다. 이러한 격차는 자율주행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더욱 벌어질 전망이다.





광활한 우주를 누비며 재능을 펼치고 싶다면

누구나 영화 속 드넓은 하늘과 우주를 탐험하는 비행기, 우주선을 보고 직접 조종하거나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 있을 것이다. 우주를 무대로 활약하는 항공기조종사·항공우주공학자는 어떤 일을 하는지, 필요한 자질은 무엇일지 함께 알아보자.

정리 편집실 참고 책 「MBTI 진로탐색」의 다수



ISTP의 특징

#손재주 #객관적 관찰 #실용적

“**실용적이며 관찰력이 뛰어납니다.
손으로 일하는 것을 즐기고, 나의 속도로
일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ISTP는 장인(匠人)형으로, 손기술이 타고나 유용한 물건을 만들어 내는 것에 소질이 있고 스스로 그것을 즐긴다. 이성과 호기심으로 세상을 관찰하고 상황을 논리적으로 파악한다. 기술이나 기계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으면서도 친절하고 차분하며, 즉흥적이고 규칙에 얹매이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다.

다소 예측 불가능한 성향이지만 다른 사람을 돋고 경험을 공유하기 좋았다. 그러나 다른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는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긴다.

I 나의 에너지 방향은?

외향형 E

- 글보다는 말로 표현하기 원해요.
- 사교적이며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에너지를 얻어요.

내향형 I ✓

- 말보다는 글로 표현하기 원해요.
- 깊이 생각하고 혼자만의 생각을 통해 에너지를 얻어요.

S 나의 인식 기능은?

감각형 S ✓

- 실제의 경험, 현재에 초점을 맞춰 생각해요.
- 실용적이고 현실적이며 직접 관찰한 정보를 신뢰해요.

직관형 N

- 영감, 아이디어, 의미에 초점을 맞춰 생각해요.
- 추상적이고 미래지향적이며 직감을 신뢰해요.

T 나의 사고 성향은?

사고형 T ✓

-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의사 결정하기 원해요.
- 일관성, 공정성, 진실성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감정형 F

- 가치관, 공감, 타인의 감정에 대한 배려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려요.
- 조화, 공감, 인간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P 나의 의사 결정은?

판단형 J

- 계획해서 결정을 내리고, 일정을 따르는 것을 좋아해요.
- 명확성, 예측 가능성, 안정성을 중시해요.

인식형 P ✓

- 새로운 정보에 적응하고 선택권을 열어두는 것을 선호해요.
- 유연성, 자발성, 개방성을 중시해요.

나에게 맞는 직업일까?



항공기조종사의 성향

책임감

- 승객의 안전을 위해 사명감을 갖고 일하고 싶다.

영어

- 관제탑과의 교신을 모두 영어로 소통하고 싶다.

판단력

- 갑작스러운 기상 변화에 신속히 대처하고 싶다.

체력

- 오랜 시간 비행할 수 있을 정도로 튼튼하다.

하는 일

- 승객, 화물을 안전하게 수송하기 위해 항공기를 조종한다.
- 구조 작업, 항공 측량을 목적으로 하는 조종에도 관심 있다.

취업 분야

- 대형/저가 항공사, 항공화물회사, 비행교육원
- 항공기정비원, 항공교통관제사, 항공기조립검사원

챗 GPT가 살펴본 직업 전망

해외여행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향후 더 많은 조종사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된다. 항공기 자동화 기술의 발전으로 조종사의 역할이 변화할 수 있지만, 완전한 자동화는 아직 먼 미래의 일이기에 조종사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저비용 항공사, 지역 항공사의 성장으로 인해 향후 대형 항공사 외에도 다양한 곳에서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전망이다.



항공우주공학자의 성향

호기심

- 모르는 것을 궁금해하고 질문하는 습관이 있다.

수리력

- 수학·물리 지식을 계속 공부하고 싶다.

자기 개발

- 새롭게 발전하는 기술을 습득하고 싶다.

컴퓨터 활용

- 컴퓨터 비행에 필요한 IT 지식을 공부하고 싶다.

하는 일

- 여객기, 전투기, 인공위성, 우주선을 설계 및 개발한다.
- 인공위성, 로켓 개발에 참여해 시스템과 장비를 연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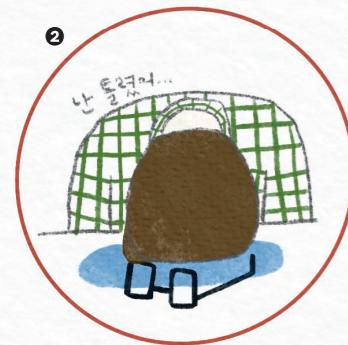
취업 분야

- 항공기 제작업체, 인공위성 부품업체, 우주연구소
- 통신공학기술자, 우주전파예보관, 인공위성개발원

항공우주공학자가 되고 싶다면

수리 논리력, 분석력, 판단력과 탐구 정신이 요구되며, 대학에서 항공우주공학을 비롯해 기계공학, 전자공학, 재료공학 등 다양한 분야의 과학기술을 공부할 필요가 있다. 보통 석사 이상의 학력이 요구되며,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분야이므로 새로운 기술 및 지식 습득을 위해 영어 등 외국어 능력도 기본적으로 갖춰야 한다.

도전을 방해하는 요인



한두 번 만에 안되면 어ძ단가요?
되기만 하면 됩니다.
안돼도 여러 번 도전하세요.

첫 번째. 금방 포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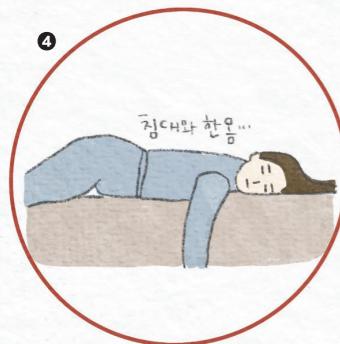


자, 오늘은 도전을 방해하는 요인을 찾아보겠습니다.



완벽을 기대하면 시작조차 어려워요.
걱정은 멈추고 일단 시작해 보도록 해요.

두 번째. 완벽을 추구한다.



어던 계획이나 몸부터 움직이는 것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 귀찮음이 모든 걸 이긴다.



이 세 가지를 먼저 비우고 도전해 보세요.
이전과는 또 다른 결과를 만날 거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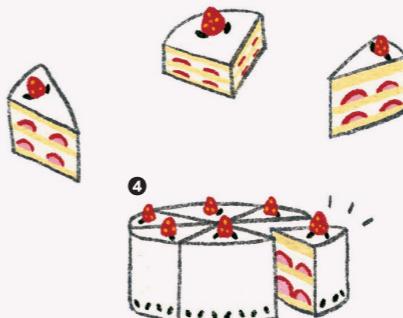


①

지금 이 순간도 인생의 한 조각



여러 번의 생일이 지나고 어느새 성인이 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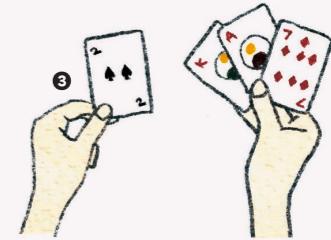


그 선택이 모이고 모여
나라는 사람이 완성되어간다.

첫 생일을
축하해~♥



생일
축하합니다♪



우리는 매일 눈에 보이지 않는
크고 작은 선택을 하고



늘 지금 이 순간에 진심을 다하자.
돌아보면 가장 나다운 조각들로 내 삶이 채워지고 있을 것이다.



「월간내일」과 함께하는 초성퀴즈

「월간내일」2024년 11월호를 읽고 퀴즈에 응모해 보세요!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QUIZ

청년들의 구직 의욕과 자신감 향상을 독려하고 취업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Tip) <고용 아카이브> 코너

Hint!

다시 찾으시오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고용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Tip) <일터애(愛)서> 코너

Hint!

다음 똑·똑

참여방법 | 이벤트는 QR코드를 통해 응모하실 수 있습니다.



Step 1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

Step 2 이벤트 응모 입력 후 제출

※ 참여기간

2024년 11월 17일(일)까지

※ 당첨자에게

별도로 연락드립니다.

10월호 당첨자 축하드립니다!

강*구(5915) 권*진(7628) 김*욱(9410) 박*자(4136)
박*라(8592) 이*일(7979) 전*연(5493) 조*주(3882)
최*운(1392) 한*기(0016)

「월간내일」 독자 라운지

이번 「월간내일」 잘 읽어 보셨나요? 이번호를 읽으며 가장 좋았던 내용은 무엇이며, 가장 도움이 되었던 내용은 무엇인가요?
더욱 알찬 「월간내일」로 여러분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독자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 ① 이번 「월간내일」에 대한 만족도는 어떤가요?
- ② 이번 「월간내일」에서 가장 좋았던 내용과 이유는 무엇인가요?
- ③ 앞으로 「월간내일」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나 보완되었으면 하는 점은 무엇인가요?



참여방법 | 이벤트는 QR코드를 통해 응모하실 수 있습니다.



Step 1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

Step 2

이벤트 응모 입력 후 제출



참여기간 2024년 11월 20일(수)까지

※ 당첨자에게 별도로 연락드립니다.



「월간내일」 구독 및 구독 해지 방법

- ① 「월간내일」 웹진에 접속합니다.
- ② [QUICK MENU]를 클릭하고, '구독신청 및 해지'를 클릭합니다.
또는 홈페이지 제일 아래의 '구독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③ 구독하시려면 '신청하기' 버튼을, 구독을 해지하시려면 '해지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구독 및 해지를 위해 정보입력 및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